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연구*

이진화·이진솔**

(중앙대학교)

Lee, Jin-Hwa and Jinsol Lee. 2018. A study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creativity competency and their awareness and self-efficacy on creativity teach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2, 239-259. This study investigated pre-service English teachers' creativity competency and their awareness and self-efficacy on creativity teaching. A total of 81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articipated in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participants had a high level of competency in the social dimension of creativity but their competencies in divergent thinking and curiosity were relatively low. Second, they agreed with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facilitative role of creativity teaching at school. However, they felt they are not sufficiently knowledgeable about creativity teaching. Their self-efficacy in creativity teaching was moderately high. Third, th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creativity competency was correlated with their creativity teaching awareness and self-efficacy. Fin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in general.

Keywords: creativity competency, creativity teaching awareness, creativity teaching self-efficac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1. 서론

교육은 단순히 사회의 변화를 좇아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교신저자: 이진화

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의역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책임감(taking responsibility), 긴장과 딜레마의 조정(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creating new value)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8). 여기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직업, 새로운 과정과 방법, 새로운 사고와 생활 방식,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OECD 2018, p. 5) 역량을 말한다.

창의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의·인성교육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고(안성호 2012),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처럼 창의역량을 키우는 교육, 즉 창의교육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정되고 단절된 지식 대신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으로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창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창의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사의 인식과 역량이다. 만일 교사가 창의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창의교육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이 교육현장에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인식 연구가 시행되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박태준, 장재학 2017, 이진영, 김태영 2013). 또한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행 능력은 교사 개인의 창의역량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면 창의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교육을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창의역량, 그리고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행 능력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강화하는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창의교육 중심의 교사교육은 교과마다 구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과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사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역량이나 창의교육 역량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부 있었으나 교과별로 세분하여 살핀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영어과 창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사전 연구로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을 진단하고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을 조사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일반(사범대 재학생 및 교직 이수자 전반)과의 비교를 통해 영어과 예비교사들만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은 어떠한가?

둘째,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은 어떠한가?

셋째,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 인식 및 효능감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넷째,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은 예비교사 일반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창의역량

창의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이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은 물론 교육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학문 영역이나 대상에 따라 상이하고 단일 개념으로 귀결되기 어려워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에 창의성을 다각적 측면의 구성요인들의 통합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가령, 문용린 외 3인(2010)에서는 창의성을 인지적 특성(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문제해결력), 성향적 특성(독립성, 용기, 자율성, 독창성), 동기적 특성(호기심/흥미, 몰입)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았고, 최상덕 외 3인(2011)은 인지적 측면(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상위인지능력, 영역특수지식)과 인성적 측면(호기심, 모험심/도전정신, 개방성, 인내심, 독립성)의 통합으로 보았다. 김성훈(2011)은 새로움 추구력, 가치로움 추구력, 산출물 양산력을 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창의역량은 위와 같은 창의성 개념을 역량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창의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포함”(지은림, 주언희 2012, p. 70)한 것이다. 즉, 기존의 지식과 태도 중심의 창의성 개념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을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은림과 주언희(2012)는 ‘창의적 인재 역량’의 구체적인 구인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지적 특성은 지적 사고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고차적 사고력, 확산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포함한다. 정의적 특성은 학습자의 개인 성향과 성격에 관한 것으로 호기심, 개방성, 감수성, 과제집착력을 하위구인으로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은 학생을 둘러싼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 가치 추구하고 협동 및 배려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란 인지적으로는 기존의 지식과 독창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에 몰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타인과의 협동과 배려 속에서 사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창의적 인재 역량의 구성요인(지은림, 주언희 2012, p. 77)

영역	구성요인	세부내용
인지적 특성	고차적 사고력	학습한 것을 생각,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논리적 분석하고 종합하는 사고능력
	확산적 사고력	하나의 문제에 대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내고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
	문제해결력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능력
정의적 특성	호기심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성향
	개방성	기존의 사고의 틀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눈으로 새로운 가능성(아이디어)을 탐색하고자 하는 성향
	감수성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향
	과제집착력	한 가지 문제나 흥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과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는 성향
사회적 특성	사회가치추구	개인이 사회 기여 및 공익 추구를 위해 가져야 할 책임의식 및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힘
	협동 및 배려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함

교육 분야에서의 창의성 혹은 창의역량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교사 창의성과 학습자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노영희, 김재철, 김호 2007, Marks 1989, Tafuri 1994)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교사나 예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미정 2007). 박숙희(2007)는 현직 교사

들과 교직과정 이수자 및 일반 대학생 집단의 창의성을 TCT-DP(Test for Creative Thinking-Drawing Production)를 통해 측정된 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사집단의 창의성이 비교집단의 창의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연령, 성별, 학부 성적, 교직경력 등에 따라 교사의 창의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교사와 사범대 예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윤마병과 서재복(2014)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독창성, 유창성, 민감성, 정교성, 융통성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가 현직교사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의성 요인들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감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현직교사들보다 낮아, 예비교사들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현우와 조명희(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자 역량 10개(기본역량 5개, 실천역량 5개)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도,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성의 중요도에 비해 보유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창의성은 교육요구도에서 기본역량 5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1, 2, 3학년 집단에서는 전체 10개 역량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범대 학생들이 창의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수영 외 3인(2016)은 구체적으로 예비교사들이 부족한 창의성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사고능력(추론능력, 질문능력, 비판능력, 연합능력)과 상상력과 독창성(개방성, 유창성, 정교성, 확산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역량은 대체로 높은 반면 상상력과 독창성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창성과 확산성 점수가 낮았다. 박선형과 이경화(2015)는 사범계 학생들과 비사범계 학생들의 창의성을 비교한 결과 호기심, 민감성, 과제집착력, 유머에 있어서 사범계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의 창의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신장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2.2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창의교육’이라는 용어는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둔 ‘창의성 교육(teaching creativity)’과 효과적인 교수방식에 초점을 둔 ‘창의적인 교육(teaching creatively)’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Jeffery and Craft 2004). 본 연구에서 창의교육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창의성 교육을 의미한다.

교사 개인의 창의역량은 창의교육을 시행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만 높은 창의역량이 곧 우수한 창의교육 역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사로서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신념이 있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역량과 별도로 이들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행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숙과 최병연(2015)은 교사의 창의교육에 대한 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교육에 대한 관점, 창의교육 방해, 창의교육 저해, 창의교육 수행이라는 네 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한 다음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창의교육 시행에 관련된 요인 및 자신의 수행 정도를 모두 묻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반면, 박현숙 외(2015)는 6개의 간단한 설문 문항을 통해 창의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임정하 외 2인(2015)은 창의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창의·인성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을 측정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창의·인성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으로 구성된 이 척도에서 창의교육과 관련된 항목은 총 9문항으로 교사로서 창의성의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척도를 시행한 결과 창의교육과 관련된 교수효능감은 6점 만점에 4.26점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창의교육 교수효능감은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동기와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9$).

한편, 정혜영과 최규리(2013)는 초등 예비교사 2, 3, 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 별로 교육실습 전후의 창의성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창의성에 대한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우선, 창의교육에 대한 관심은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교육실습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의성 교육에 대한 지식은 2, 3, 4학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창의교육이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2학년에서만 유의미한 향상이 발견되었다. 대체로 초등 예비교사들은 창의교육에 대해 중간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창의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관련 연수나 워크숍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창의성을 촉진시키기에 적합한 과목을 묻는 질문에 미술, 과학, 국어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도덕, 영어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영어의 경우 기초적인 내용의 반복 연습과 암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창의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교과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교과의 경우 내용 교과가 아니라 도구 교과로 인식되고 있고 외국어 교과인 만큼 기초적인 언어 능력의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다 보니 창의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강후동 2012, 안태연, 권서경 2014). 이러한 교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어과 교사나 예비교사들이 창의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효능감은 타 교과와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창의교육 역량을 교과별로 세분하여 조사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가자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 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의 C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017학년도 2학기에 ‘영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나 ‘멀티미디어 영어교육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43명과 2018학년도 1학기에 ‘영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하는 학생들 38명, 총 8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배경 정보는 표 2와 같다. 참가자 모두 영어교육을 전공 혹은 복수/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90%가 3~4학년 재학생이었다. 73%의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있었고 75%는 이미 교직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답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이미 전공교과목을 상당수 이수하였고 다수가 교직을 희망하고 교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창의교수 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영어과 예비교사 집단과 비교를 위한 예비교사 일반 집단의 자료는, 본 연구와 동일한 대학의 예비교사(사범대학 재학생, 교직 이수자) 156명을 대상으로 동일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전선헤 외(2018)에서 가져와 재분석하였다. 전선헤 외의 연구는 예비교사들에게 창의교육 교과목들을 시행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교과목 수강 전후의 창의역량, 창의교육 인식 및 효능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사전조사 자료를 가져와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교과목은 체육, 영어, 유아교육, 러시아어, 독일어, 음악, 보건으로 다양했다.

표 2. 연구 참가자의 배경 정보

배경변인	범주	인원수	퍼센트
전공	전공	65	80
	복수/부전공	16	20
학년	2학년	8	10
	3학년	64	79
	4학년	9	11
희망진로분야	교직	59	73
	비교직	10	12
	미정	12	15
교직준비여부	예	61	75
	아니오	20	25

3.2 자료수집 도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및 신뢰도

구인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창의적 인재 역량	인지적 특성	고차적 사고력	3	.86	.94	
		확산적 사고력	5	.86		
		문제해결력	4	.81		
	정의적 특성	호기심	4	.83		.86
		개방성	3	.63		
		감수성	4	.86		
		과제집착력	3	.76		
	사회적 특성	사회가치추구	3	.61		.80
		협동 및 배려	3	.81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6	.75			
창의교육 효능감		9	.88			

설문지는 3개 구인을 측정하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창의역량 측정 도구는 지은림과 주언희(2012)가 개발한 창의적 인재 역량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서 창의적 인재 역량을 측정하고 있고 총 9개의 하위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32문항이다. 다음으로 창의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현숙 외(2015)에서 개발한 설문지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6문항과, 창의·인성 교수효능감 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창의교육 요인 9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지은림과 주언희(2012)와 박현숙 외(2015)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6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점수가 주어 진 문항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혼란이 있다. 가령, 6점 가운데 3점이면 절반이므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실은 ‘다소 아니다(3점)’에 해당되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다소 아니다(3점)’와 ‘다소 그렇다(4점)’의 중간인 3.5점이 유보적인 입장에 해당된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5점 척도가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크론바흐 알파를 통해 각 구인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적 인재 역량의 전체 문항 신뢰도는 .94, 창의교육 효능감은 .88로 높은 값을 보였다.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구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75로 약간 낮았으나 여전히 측정 도구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설문지는 구글 닥스(Google Do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학기 첫 주 수업 시간에 강의 담당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를 화면에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는 학점과 상관이 없었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일부 있었다.

설문자료는 SPSS 23 버전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분석을 통해 설문지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기술통계를 통해 구인 및 하위요인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또한 세 구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예비교사 일반과 영어과 예비교사 간의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표 4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 점수를 하위요인별로 나타낸 것이다. 9개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 가치 추구’가 5점 척도에서 4.2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협동 및 배려’가 4.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요인 모두 사회적 측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사회적 영역의 창의역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경우, 2개의 하위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요인 모두 3.80이상의 점수를 보여 ‘대체로 그렇다(4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요인은 확산적 사고력으로 3.41이었고, 정의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호기심으로 3.3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확산적 사고력과 호기심이 다른 창의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말해 준다.

표 4.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영역	하위요인	영어과 예비교사 (본 연구)		예비교사 일반 (전선헤 외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특성	고차적 사고력	3.85	.56	3.77	.59
	확산적 사고력	3.41	.67	3.45	.71
	문제해결력	3.84	.54	3.83	.53
정의적 특성	호기심	3.39	.74	3.54	.72
	개방성	3.80	.72	3.84	.66
	감수성	3.96	.72	3.97	.71
	과제집착력	3.82	.62	3.88	.63
사회적 특성	사회가치추구	4.21	.48	4.22	.53
	협동 및 배려	4.10	.49	4.13	.55

이와 같은 영어과 예비교사의 창의역량이 어떤 수준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전선헤

외(2018)의 동일 대학 전체 예비교사 집단과 비교해 보면,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창의역량을 나타냈다. 특히 호기심에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낮았으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9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 수준이 예비교사 일반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각 하위요인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의 창의역량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인지적 특성에 속하는 3개 하위요인의 문항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인지적 특성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고차적 사고력	나는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영역에 응용한다.	3.83	.65
	나는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3.70	.73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맥락에 맞게 종합한다.	4.02	.59
확산적 사고력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시도한다.	3.62	.81
	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3.23	.93
	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다.	3.23	.94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내는 편이다.	3.27	.82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	3.72	.71
문제 해결력	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한다.	3.72	.83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본다.	3.89	.69
	나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타당한 결론으로 이끌어낸다.	3.95	.61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한다.	3.80	.70

고차적 사고력의 경우 세 문항 모두 3.70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특히 정보 종합 능력에 대한 점수가 4.02로 인지적 특성 문항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 해결력 요인을 측정하는 네 문항 역시 모두 3.70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반면, 확산적 사고력 요인의 경우 3.70 이상의 점수를 보인 문항은 1개에 그쳤다. 독특하고 다양한 방식의 과제 수행 능력, 단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새롭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 생성 능력은 모두 3.30 미만의 점수를 보여 다른 인지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표 6은 정의적 영역의 4개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를 문항별로 나타낸 것이다. 정의적 영역의 문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감수성 요인에 속하는 공감 능력으로 4.26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집착력 요인의 하나인 업무 완수 능력이 4.01을 보였다. 대체로 개방성, 감수성, 과제집착력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호기심 요인의 경우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3.50 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에 의문을 갖는 능력이 3.20로 정의적 영역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새로운 접근법의 시도 역시 3.36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6.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정의적 특성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호기심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가진다.	3.20	.93
	나는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3.46	.98
	나는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3.53	.90
	나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3.36	.97
개방성	나는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다.	3.57	.99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3.94	.73
	나는 제도나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3.89	.94
감수성	나는 타인의 이야기에 잘 공감한다.	4.26	.72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3.94	.84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나타낸다.	3.73	.99
	나는 자신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에 감정이입을 잘한다.	3.91	.98
과제 집착력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끝낸다.	4.01	.75
	나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든다.	3.62	.75
	나는 흥미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장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수행한다.	3.83	.82

표 7은 사회적 영역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결과이다. 인지적, 정의적 영

역의 창의역량에 비해 사회적 영역의 창의역량은 모든 문항에서 3.9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4.37로 창의역량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능력 또한 4.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사회적 특성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	나는 사회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26	.63
가치	나는 사회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3.99	.68
추구	나는 사회적으로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7	.62
협동 및 배려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수행할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4.28	.60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수행할 때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3.96	.62
	나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도나 실수를 허용하고 격려한다.	4.05	.61

4.2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예비교사 자신의 창의역량과 별도로 이들이 창의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았다. 총 6문항 가운데 5개의 문항에 대해서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학생들의 창의성이 증진 가능하다는 것으로 4.23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4.14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창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창의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 역시 4.0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의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71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과 예비교사들이 창의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 또한 시행할 의지가 있으나 창의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예비교사 전반을 대상으로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전선헤 외(2018)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슷하거나 영어과 예비교사들이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개별 문항은 물론 전체 평균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 창의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만 자신의 창의교육 역량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8.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	영어과 예비교사 (본 연구)		예비교사 일반 (전선헌 외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창의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	2.71	.94	2.81	.88
학교현장에서 창의교육이 필요하다.	4.11	.67	4.24	.64
학교현장에서 창의교육은 중요하다.	4.12	.66	4.24	.67
학생들의 창의성은 증진될 수 있다.	4.23	.53	4.30	.57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높일 수 있다.	4.14	.63	4.16	.63
나는 교사가 되면 창의교육을 할 것이다.	4.01	.58	4.09	.61
평균	3.89	.86	3.97	.45

창의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식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았다.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평균 3.76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냈고 9문항에 대해 대체로 고른 수준의 효능감을 보였다. 다만,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효능감이 3.38로 눈에 띄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창의역량에서 확산적 사고력이 낮았던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3.23과 3.27로 다른 창의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처럼 자신의 확산적 사고력의 부족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 결과를 예비교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선헌 외(201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슷하거나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 효능감이 약간 높았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견 없이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항목에서의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 = 2.239, p = .026$),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예비교사 일반보다 높았다(4.00 vs. 3.81).

표 9.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교육 효능감

문항	영어과 예비교사 (본 연구)		전체 예비교사 (전선헌 외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학생들이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내도록 지도할 수 있다.	3.81	.65	3.76	.69
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3.80	.75	3.75	.74
나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3.75	.72	3.85	.69
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몰입하도록 할 수 있다.	3.65	.71	3.69	.69
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38	.80	3.35	.88
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견 없이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00	.57	3.81	.67
나는 학생들이 가치 있는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3.88	.62	3.77	.67
나는 학생들이 하나의 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3.70	.71	3.78	.67
나는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기법(브레인스토밍, 스캠퍼 등)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3.83	.69	3.70	.74
평균	3.76	.71	3.72	.50

4.3 영어과 예비교사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 인식 및 효능감의 관계

앞서 창의교육 효능감 결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촉진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특히 낮았던 이유가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확산적 사고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실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 창의교육 인식, 창의교육 효능감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구인의 평균 점수를 대상으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10과 같았다. 영어과 예비교사의 창의역량은 창의교육 인식과 .570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의교육 효능감과도 .564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창의역량이 높을수록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의교육 인식과 창의교육 효능감 간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276으로 낮았다. 이는 창의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시행 의지가 곧 실제 창의교육 효능감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0. 영어과 예비교사 창의역량, 창의교육 인식, 창의교육 효능감의 상관관계

	창의역량	창의교육 인식	창의교육 효능감
창의역량	1	.570**	.564**
창의교육 인식		1	.276*
창의교육 효능감			1

* $p < .05$, ** $p < .01$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을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창의교육 역량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창의역량에 있어서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3.8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장차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동과 배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확산적 사고력과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호기심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발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은 예비교사 일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창의역량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인 만큼 교과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교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본 연구 대상이 예비교사로서 교과교육을 받은 기간이 아직 제한적인 만큼 그 영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영어과 예비교사의 창의역량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설문지를 시행한 지은림과 주언희(2012)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요인에서 0.56~1.15점(6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한 점수 기준)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학업과 경험 등이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연구가 이루어진 시간차를 고려하면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토대로 한 간접적인 비교인만큼 추후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일단 예

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이 장차 이들이 가르칠 학생들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 가능하며 창의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교사가 되면 창의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창의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창의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시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창의교육 방안들에 대하여 영어과 예비교사들은 평균 3.76의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는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낮은 효능감을 보여 교사교육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은 예비교사 일반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 특성으로 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교과의 특성이 교사의 창의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예비교사로서 아직까지 실제 교과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효능감에 대한 답변이 교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실제 교육실습 이후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들(김이경 외 4인 2017, 정혜영, 최규리 2013)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교육실습 후에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 인식과 효능감을 조사하여 교과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은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동기와 태도가 예비교사들의 창의교육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임정하 외 2인(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창의교육 인식은 창의교육 효능감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창의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의지가 곧바로 창의교육 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영어과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예비교사 개인의 창의역량이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는 만큼 교원양성 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을 계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창의역량 가운데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확산적 사고와 호기심의 신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과 예비교사들이 창의교육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한 효능감 역시 아직 부족한 만큼,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창의교육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직접 수행해 보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추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후동(Kang, H. D.). 2012. 초등영어교육에서의 창의성·인성교육 현황분석(The present condition analysis of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18(3), 5-29.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chojungdeung haggyo gyoyuggwajeong chonglon*). 고시 제 2015-74호(별책 1). 서울: 교육부(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김성훈(Kim, S.). 2011.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평가의 방향』(*changuijeog injae yugseongeul wihan gyoyugpyeonggaui banghyang*).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연구자료 ORM 2011-17.
- 김이경·전제상·이진화·김경현·박병선(Kim, E. G., J. S. Jeon, J.-H. Lee, G. H. Kim and B. S. Park). 2017. 교육실습에서 창의·인성 교육 역량발휘 가능성과 저해요인에 대한 교대 및 사대 예비교사의 인식 분석(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n the possibility for and obstacles to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during practicum). 《열린교육연구》(*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5(4), 47-68.
- 노영희·김재철·김호(Noh, Y. H., J. C. Kim and H. Kim). 2007. HLM을 이용한 교사 창의성과 유아 창의성 간의 관계 분석(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eachers' creativity and young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열린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403-420.
- 문용린·최인수·곽윤정·이현주(Moon, Y.-L., I.-S. Choe, Y. Kwak and H. Lee). 201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baelyeowa nanumeul silcheonhaneun changuiinjaeyugseongeul wihan changui-inseonggyoyug hwalseonghwa bangan yeongu*). 한국과학창의재단(Korea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 박선형·이경화(Park, S. H. and K. H. Lee). 2015. 예비교원의 창의성 교육 방안 논의를 위한 사범계, 비사범계 대학생의 창의성 및 창의적 리더십 비교(The comparison of a teachers college and a general college students'

-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교사 창의성의 관련 변인 탐색. 《창의력교육연구》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5(2), 67-82.
- 박숙희(Park, S. H.). 2007. 교사 창의성의 관련 변인 탐색(A exploring study on the associate variables with teachers' creativity). 《영재와 영재교육》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6(2), 149-164.
- 박태준·장재학(Park, T. and J. Chang). 2017. 의사소통중심 영어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교사 의견 조사 연구(A study on high school teachers' opinions about issues of communicative English teaching and assessment).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 839-863.
- 박현숙 외(Park, H. et al.). 2015. 『2014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결과 보고서』 (*changui·inseonggyoyug seondo gyowonyangseongdaehag gyeolgwabogoseo*). 한국과학창의재단(Korea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 안성호(Ahn, S.-H.). 2012.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평가: (다)문화, 창의성 그리고 인성의 교육 측면에서(An evaluation of the 2009 amendment of the school curriculu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nglish education: Focused on its asp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reativity cultivation, and character building.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747-775.
- 안태연·권서경(Ahn, T. Y. and S. K. Kwon). 2014.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English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at English education model schools). 《열린교육연구》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4), 139-159.
- 이명숙·최병연(Lee, M. S. and B. Y. Choi). 2015. 교사의 창의성 교육 지각 척도 개발 및 타당화(Development of the scale for teachers' perceptions of creativity in education). 《창의력교육연구》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5(3), 1-13.
- 이수영·권선아·홍효정·임은비(Lee, S.-Y., S. Kyun, H. Hong and E. B. Lim). 2016. 초등 예비교사의 창의적 교사역량 분석: 교사 창의성과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Analyzing creative teacher competences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Focused on teacher creativity and teaching experiences).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 223-232.
- 이진영·김태영(Lee, J.-Y. and T.-Y. Kim). 2013.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비교(A comparative study of the awareness of students and teachers on homogeneous ability grouping in English class).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3, 287-312.

- 이현우·조명희(Lee, H.-W. and M.-H. Jo). 2012. 사범대학 재학생의 학년별 교사 자 역량 진단 및 교육요구도 분석(Teacher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assesment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by grade levels). 《한국교원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521-540.
- 임정하·김경민·조은영(Lim, J., H. Kim and E. Jo). 2015. 예비교사의 창의·인성 교수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teaching-efficacy instrument for prospective teachers). 《교육문제연구》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8(4), 27-44.
- 윤마병·서재복(Yoon, M.-B. and J.-B. Seo). 2014. 현신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창의성에 대한 중등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 비교(Comparison of perception between secondary school teacher and pre-service teacher about the creativity as an essential quality of highly professional and committed teachers).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7(3), 303-312.
- 전선혜 외(Jun, S.-H. et al.). 2018. 『2017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Developing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curricula for creativity education in school*). 한국과학창의재단(Korea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 정혜영·최규리(Chung, H.-Y. and K.-L. Choi). 2013.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교사들의 창의성 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Creativity education perceived by preservice teachers with practicum experience). 《초등교육연구》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6(4), 173-199.
- 지은림·주언희(Chi, E. and U. Ju). 2012. 창의적 인재 역량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Exploring the construct and developing the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교육평가연구》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5(1), 69-94.
- 최미정(Choi, M.). 2007. 교사 창의성의 의미와 과제(The task and meaning of teacher creativity).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ion*) 7(1), 431-447.
- 최상덕·김지하·박병영·차성현(Choi, S. D., J.-H. Kim, B.-Y. Park and S. H. Cha). 201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창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의 방향과 과제』 (*jisiggibangyeongjeeseoui changjohyeong injaeyangseongeul wihan gyoyug gaehyeogui banghyanggwa gwaje*).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 CR-2011-02.
- Jeffery, B. and A. Craft. 2004. Teaching creatively and teaching creativity: Distinctions and relationships. *Educational Studies* 30(1), 77-87.
- Marks, T. 1989. Creativity inside out from theory to practic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 204-220.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Retrieved April 10, 2018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
- Tafari, D. M. 1994. *The Effects of Creativity on Teacher-student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SA.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성인(Tertiary)

이진화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Tel: (02) 820-5400
E-mail: jinhlee@cau.ac.kr

이진솔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ghjinsol@gmail.com

논문접수: 2018년 5월 10일
논문수정: 2018년 6월 10일
게재결정: 2018년 6월 25일